

# 국제유가 흐름과 향후 시장전망



李文培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장〉

## 1. 머리말

나이지리아 사태가 한달을 넘기면서 국제유가는 줄곧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NYMEX의 WTI 최근월물 가격이 배럴당 20.30달러로 마감되어 올들어 지난 6월 중순이후 3번째로 20달러대를 넘어섰다. 같은 날 런던시장에서 북해산 브랜트원유도 18.59달러로 올들어 또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아시아지역 시장에서도 나이지리아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여전히 강세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만일 나이지리아 사태가 더욱 악화

될 경우 나이지리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美國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유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다.

## 2. 최근 시장의 특징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유가 흐름이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단기 석유시장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연말까지 생산량 동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4/4분기 석유수급 상황 악화를 우려한 심리적 요인이 시장에 팽배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비수기인 2/4분기 이후에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에멘사태, 현 나이지리아 사태 등 정치적 요인과 투기수요의 확대 가능성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비수기인 2/4분기중에 이미 작년말 대비 무려 40% 가까운 가격 상승을 실현하였으며, 7월말에는 이미 '93년초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와같은 비수기의 가격 상승세는 4/4분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수급적 요인만으로 판단한다면 현 3/4분기중 WTI가격은 18~19.50달러, Brent 16.50~17.50달러, Dubai 15.0~16.0달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급 이외의 정치적 요인들이 현재 국제석유시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 1~2달러 우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상반기 국제유가 흐름의 분석

지난 3월말 OPEC 감시위원회 개최 이후 계속되어온 국제석유시장에서 일반적인 예상을 넘어선 유가급등 현상은 투기요인과 美國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요인, 그리고 유전사고, 전쟁, 파업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투기적 요인에 의한 유가상승은 특히 1990년 이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NYMEX, IPE 등 국제석유선물시장에서의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을 선도하는 기능이 정착되면서 발생된 새로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투기수요는 존재하였지만, 투기수요가 가격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즉, 과거 OPEC가 가격을 결정하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은 시장으로 흡수되어 매도와 매수세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격결정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투기수요는 연초 美國의 4차에 걸친 금리인상 결과, 주식 및 채권시장이 침체되자 각종 기금 등 투기성 자금이 대거 국제 석유선물 시장으로 유입되므로써 크게 부각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상반기에 이어진 달러화 약세로 투기성자금의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요인에 의한 가격상승은 상반기중 특히 美國 지역에서의 석유소비 증가와 제품 재고수준 하락에 따른 것이다. 美國의 수급동향은 국제유가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美석유협회(AP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美國은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예상외의 호한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반기중에 1,760만b/d의 석유를 소비하여 전년 대비 4.2%의 소비증가율을 기록했다. 협회는 소비증가율 4%중 1%는 연초 호한의 영향이었으며, 나머지 3%는 경기회복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수급적요인만으로  
판단한다면 현 3/4분기 중  
WTI 가격은 18~19.50달러,  
Brent 16.50~17.50달러,  
Dubai 15.0~16.0달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핵 문제로  
국제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지난 6월 중순 NYMEX의  
WTI가격이 올들어 처음으로  
20달러를 넘어섰던 기록이  
있다.

특히 연료유의 소비증가가 6.2%로 10년내 최고의 소비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美國의 기록적인 휘발유 소비증가이다.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美동부지역의 1월 휘발유 소비증가율이 무려 4%를 기록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상반기중 휘발유 소비증가율이 평균 3%로 예상의 강세였다. 이같은 현상은 美國의 경기회복을 반영한 차량대수 증가와 쌀 휘발유가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내 정유공장들이 연일 거의 95% 가까운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이후 휘발유 수입량도 예년의 2배가 넘는 하루 40만배럴에 이르고 있으나, 소비 증가세가 아직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美國에서의 이같은 수급상황이 美國시장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4분기에 발생한 비경제적인 요인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안으로는 예멘사태와 북한핵 문제이다. 북한핵 문제로 국제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지난 6월 중순 NYMEX의 WTI가격이 올들어 처음으로

로 20달러를 넘어섰던 기록이 있다. 이는 전쟁을 우려한 심리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제트유 등 석유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개월 이상 지속된 예멘사태는 내전 초기에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막바지에 이르러 유전지역과 선적항에 대한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석유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북한핵문제는 카터 前 美國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으로 급격히 반전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의 사망과 金正日이 새로 등장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다시 잠복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외에도 북해유전에서의 가스폭발사고,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사태 등 유전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 4. 하반기 시장 전망

이제까지 시장 흐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국제유가를 전망

1994년 세계석유수급 전망

(단위 : 백만b/d)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총 수요 (A)	69.1	66.1	67.1	69.6	68.1
총 공급 (B)	68.1	67.4	67.7	68.7	68.1
O P E C(원유)	24.8	24.8	24.8	24.8	24.8
재 고 변 동 (B-A)	-1.0	+1.3	+0.6	-0.9	0.0

해 보면 3/4분기중 단기조정을 거쳐 1~2달러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의 나이지리아 사태가 해소된다면 Dubai 원유 기준으로 15.0~16.0\$/B의 가격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며, 4/4분기에 들어가 1~2달러의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사태가 의외로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더 오를 전망이다. 8월부터 재개되는 미북한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도 결과에 따라서는 유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유가상승세의 완화 요인으로 유엔의 뫼이라크에 석유수출 금지 해제조치가 의외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실제로 수출이 허용되는 시기보다 발표시점에서 미리 시장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라크는 최근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즉시 200만b/d의 생산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이란과 같은 360만b/d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5. 나이지리아 사태의 추이와 전망

나이지리아 사태는 지난 7월4일 나이지리아 석유산업 노조가 모슈드 아비올라 대통령 당선자의 석방을 포함하여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슈드 아비올라는

지난해 6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로 군사정권이 선거를 무효화하자 이에 항거해 왔으며, 지난 6월 23일 국가반역죄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 파업은 지난 7월 14일을 고비로 군사정부와 노동조합측간에 협상이 추진되는 등 타협점을 찾는 듯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이 지난달 말 협상을 거부하고 아비올라의 석방과 군사정부의 퇴진시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이지리아 전국노조단체인 나이지리아 노동의회(NLC)가 8월 3일부터의 연대파업 성명을 발표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만일 이같은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된다면,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이번의 사태가 국제유가의 상승국면에서 발생되어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이지리아는 원유생산 규모 하루 약 190만배럴로 이중 약 150만배럴을 수출하는 OPEC회원국이며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다. 특히 수출 물량의 약 절반가량이 미국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은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위하여 특사파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美國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세계 원유시장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이제까지  
 시장흐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국제유가를 전망해보면  
 3/4분기중 단기조정을 거쳐  
 1~2달러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